

CONTENTS Vol. 96 · 봄 | 2026

- 02 **청운동 사계** | 손녀와 인도 여행 · 이란
- 03 **발행인 편지** | 정대련
불교 르네상스 III를 위한
연꽃 송이 시시처처에 피어나기를
- 04 특집/다함께 추모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 발전에 헌신하신
노숙령 고문님을 기리며
- 06 **특집/불교여성광장 건립 모연** | 김애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불교여성광장 건립의 역사와 모연
- 08 **찾아슈** | 박현주
신년맞이 정목스님 법회와 제8회 여성불자 108인의 날
달팽이처럼 느려도 오늘 한걸음을
- 12 **지금 여기 우바이** | 양현정, 김태훈
교정교회센터 법회 봉사
우리 여기 함께 갈까요?
- 15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윤효진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명오 스님
마침내 소를 찾은 얼굴을 마주하다
- 18 **아기 부처 엄마 보살** | 김수영
'보고 싶고 함께 놀고 싶어' 절에서 만난 불자 가족
용문사 은행나무에 해맞이 소원을 걸다
- 21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 정철재
관음 큰스님 숨결 가득한 직지사 중암
'마음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 24 **사찰 문화 배워봅시다** | 이예지
요즘 직장인의 힐링 워크숍
'절'의 기운과 무게가 주는 치유의 공간
- 26 **불교와 여성** | 조민기
65년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낸 정순왕후
천 오백만을 울린 단종의 그녀
- 28 2026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 여성 임원
30 개발원 소식
32 산하기관 센터 소식
35 회원동정
36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연
38 재정 동참 현황
40 2026년 상반기 계획

우바이예찬

2026년 통권 96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편집위원장 남혜경

편집위원 김영희, 윤효진, 이예지, 조민기, 최연지, 이지운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사진 : 손혁재 (사진작가 ·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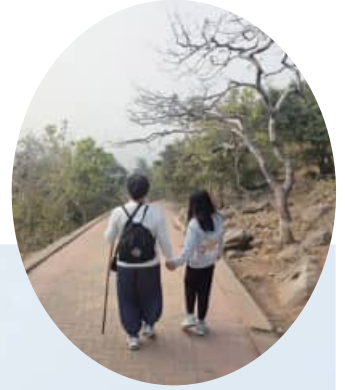
손녀와 인도 여행

나는 순간 뜨거웠다
내 나이 일흔하고 여섯에 손녀는 손을 꼭 잡으며 나를 세웠다

열 살 손녀는
할머니하고 인도 여행이
소원이라고 손 내밀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했더니
손녀와 부처님 나라에 초대되어
들이 들어서
인도에 갈 일이 남아서였나 보다

오늘 우리는 두 손 꼭 잡고
차도 아닌 인도를
그냥 걷고 있다



글 · 사진 이란_ 2차 108인

불교 르네상스 Ⅲ를 위한 연꽃 송이 시시처처에 피어나기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년맞이 법회로 불교여성개발원의 새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정각사 정목스님께서 “여성시대, 깨우침과 도전”을 주제로, 인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판단 보류의 지혜와 생명을 빛는 대보살 ‘흙’의 지혜 법문을 주셨습니다.

붉은 매화와 노란 산수유가 반가운 새봄의 기운은 불교여성개발원에 젊고 싱그러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영108 젊은 회원들이 2025 정각사 가족템플스테이 인연을 이어 서로 소통하며 아기보살들을 위해 용문사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음 눈이 남은 계곡, 연못과 은행나무 아래 대자연을 만끽하며, 돌탑 쌓고 범종루 타종하고 캠프파이어 하며 마시멜로 구워 먹고 첫 새벽 일출을 맞으며 아기보살들과 영108 젊은 부모들이 부처님 세상의 환희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여성불자108인의 수행·교육·봉사 이념은 직지사 중암의 인연을 40년간 이어 아릅드리 보리수로 키우고, 대기업 대중을 위한 템플스테이 힐링 워크숍을 기획하여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열어주었습니다. 108인의 지혜로운 자비심은 시절 흥한 대중문화 속에 가려진 여인들의 깊은 슬픔과 불법 귀의의 역사를 읽어내고, 여의치 못한 환경에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서기를 응원하며 한 줄기 빛을 비추고자 하였습니다.

2월 마지막 날, 불교여성개발원 9대 원장이시고 사)지혜로운여성 6대 이사장이셨던 노숙령 고문님의 부음을 받고, 많은 회원들이 황망함 속에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우바이예찬 봄호에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개발원의 기반을 탄탄히 세우신 노숙령 고문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고문님을 기리는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고 노숙령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추모의 정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교르네상스 Ⅱ를 추진하시며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크나큰 주춧돌을 놓아주신 노숙령 고문님의 뜻을 새기며, 201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회원들의 염원과 모연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불교여성광장이 하루속히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연꽃 송이가 시시처처에 피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마하살 ~_000_ 

불교여성개발원 발전에 헌신하신 노숙령 고문님을 기리며

“금강경 기도 함께 합니다. 0_”

매일 새벽 4시 59분, 하루도 어김없이 불교여성개발원 금강경 독송 기도 단톡방 첫 문을 열어주시던 노숙령 원장님!

2026년 2월 28일, 보조개 깊은 아름다운 미소로 주위의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노숙령 원장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노숙령 원장님은 불교여성개발원 1천여 여성불자 회원들을 위한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1억 원을 쾌척하시고, 원장 임기 2년 동안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선명상·화훼명상·건강밥상·생명존중운동·태극권 강좌 등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 개설 운영, 국내·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그리고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군포교 봉사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반가운 모습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음에, 아름답고 크신 공덕을 기리며 그리운 마음 가득 담아 여기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



노숙령 고문

9대 원장(2017-2018), (사)지혜로운여성 6대 이사장,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마련 문화제 <불교르네상스의 꿈 II> 개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불교여성연구소 국제학술토론회 '불교의 지평,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
- 생명존중운동본부 발족 및 <생명존중을 위한 동화구연 자격증 과정> 개강
-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꿈 키움 툴 만들기' 선정
- <꽃, 그림, 경전으로 푸는 마음 치유> 명상 특강 (10회)
- 행정자치부 기금사업 <두리모(미혼모)와 자녀의 꿈 키움 툴 만들기 "꿈틀꿈틀"> 생활설계 전문가 교육
-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 시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 태극권(우수) 건강 강좌 개설
- 김흥근 교수 초청 <인문학으로 읽는 선불교> 개강
- 군포교 자비의 선물 나누기 (3,250세트 발송)
- 대만 4대 명찰 사찰 순례

추모의 글 / 즉독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하며 다함께 발원합니다

어머니께 드려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어리석은 집착으로 비루한 자식의 심장 힘을 앗아 어머니께 향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공(空) 속에 흩어져 허망하였나이다. 이별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멀리서 슬픔을 나누어 주신 분들, 어려운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이 생에서 못다 갚은 은혜 꼭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 비로소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고통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새들의 날갯짓에 나부끼는 바람처럼 무궁하옵소서.
부디 번뇌의 다리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러 성불하시옵소서. — 한우진 / 고 노숙령 고문 아들

고 노숙령고문님의 명복을 빌며, 즉독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다함께 발원하십시오!
노숙령 고문님을 추모하며 — 일법스님 / (전)전국비구니회 원로회 의장

호탕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던 고문님께서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습니다. 원장 재임 시절 불교여성개발원의 공간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큰 보시하시며 '불교 르네상스' 모금 행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하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을 여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후임 원장 선출 과정에서 포교원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재가 여성불자 단체가 나아가야 할 원칙을 분명히 밝히시며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불교여성개발원은 독립된 공간을 갖춘 범종단 재가여성불자 단체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후임 원장으로 일할 때는 고문님께서 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세심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최근 퇴었을 때에는 외동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손녀에게 그림동화책을 읽어 주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나빠 책 읽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림동화책은 읽기 쉽고 참 좋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침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진행한 시 그림동화책 창작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저의 책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책을 고문님 영전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마음이 더욱 아립니다. — 김외숙 / 10대 원장

원장님! 얼마전 모시고 점심 먹으려고 했더니, 아드님과 약속하셨다고 큰추위 지나고 만나기로 한 약속 어찌하시고, 아무 말씀없이 그 먼길 떠나셨어요. 원장님! 일본여행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곳곳의 산하대지를 여행하고 생신 축하 자리의 기쁨, 맛집을 다니며 그렇게 잘 잡수시던, 환한 미소로 이어왔던 인연의 끈을 벌써 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고 황망합니다. 저의 대학 같은 과 선배님이시며, 원장님의 은사 교수님이 저의 시아버님의 제자이셨던 귀한 인연, 개발원에서 모시고 긴 시간 함께했던 많고 많은 사연들이 이 저녁 저를 너무도 슬프게 합니다.

원장님! 오랜 병환의 아픔과 괴로움 벗어나 새 옷 갈아입으시고 늘 경전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마음 허뜨리지 마시고 오직 오직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만이 원장님 가실 곳이니 발심하시고 편히 가소서. — 최혜경 / 수익사업단장

아이! 불교여성개발원의 기둥이신 노숙령 고문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님께서서는 평소 금강경 수행을 해 오신대로 여려하게 떠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자유의 길을 떠나신 님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곁에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 김애주 / 6대 원장 🌸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모금 문화제

불교 르네상스의 꿈

제Ⅲ의 불교 르네상스를 꿈꾸며



2026년 3월 현재, 2011년 불교여성광장 건립의 꿈을 꾸지 만 15년이 흘렀습니다. 불교 르네상스의 꿈 I과 II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조계사 옆 1층 35평의 전세 공간에서 벗어나, 청운동 서기(瑞氣) 어린 곳에 독립된 불교 여성광장을 마련하고 새 출발을 한 지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온전한 제Ⅲ의 불교 르네상스 시대를 꿈꾸며, 우선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청해 듣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불교여성광장 건립의 역사와 모연

— 김애주 (제6대 원장)

2011년 1월 25일 필자는 제6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겸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직후 3월, 포교원의 사정으로 당시 포교원이 제공한 수송동 개발원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장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개발원의 여성불자들은 현 사태를 오히려 전례 없는 기회로 전환하자고 결의하였다.

‘광장’ 명칭과 ‘낯설게 하기’의 혁신적 철학

2011년 5월 13일,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모금위원회가 발족하며, 공간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필자는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 평등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던 공적 공간의 의미를 담아 ‘불교여성광장(아고라)’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고라’라는 용어가 특정 정치 진영의 상징처럼 사용되던 시기였기에, 우리 개발원 이미지에 자칫 편향된 정치적 색채가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편 불교 단체인 만큼 인도의 전통적 수행처인 ‘아쉬람’과 같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명칭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필자는 고민 끝에 ‘아고라’ 표현에서는 한발 물러나되, ‘광장’이라는 명칭은 끝까지 고수하였다. 기존의 불교계 여성 단체가 가졌던 정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석 달 후, 2011년 8월에는 불교여성광장 건립 취지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재가 여성 불자들이 신행과 교육, 봉사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렸다. 여성 불자들이 모여 수행과 배움, 사회 실천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불심 컨버전스’ 공간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하였다. 당시 기독교계의 YWCA 건물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재가 여성 불자들에게도 독립된 불교 기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곧이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포교원장을 모시고 입재식을 진행하였다. 불교여성광장이 될 공간은 조

계사 인근에 위치한 약 35평 규모의 강의실로, 50석 정도의 교육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하였다. 공간 확보 방식은 매입 또는 전세를 검토하였으며, 모금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판을 크게 벌려라”, 수불스님의 죽비 같은 격려

본격적인 모연을 위해 실행위원들은 사찰과 기업을 직접 찾아다녔다. 특히 2011년 8월 안국선원 수불스님을 찾아뵈었을 때가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내부에서는 비싼 대관료의 재정 부담을 염려하여, 외부 모연 행사를 반대하는 우려가 컸다. 고민을 전해들은 수불스님께서 “크게 벌려면 크게 판을 벌려야 한다”며 위원들의 마음을 단번에 다잡아주셨고, 그 자리에서 거액을 약정해 주셨다. 수불스님의 격려에 힘입어 실행위원들은 월정사 적멸보궁에 올라 기도하며 불교여성광장 건립의 의지를 결집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광장 건립을 향한 발원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수불스님과 자승스님

단청 패션쇼의 감동, 기적 같은 모연의 꽃을 피우다

불교여성광장 건립 모연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1년 11월 ‘불교 르네상스의 꿈 I’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불교 르네상스의 꿈〉 백미는 이기향 교수가 실제 무대 진행만으로도 3천만 원이 넘는 패션쇼를 자비로 보시하며 올린 ‘단청 패션쇼’였다. 일부에서 제안했던 소박한 개량 한복 패션쇼를 거부하고, 불교문화를 최고 수준의 현대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파격적인 선택은 적중하였다.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찬란한 단청의 색채가 장신 모델들의 위킹을 통해 패션으로 살아나는 장면에 압도되었다. 객석 여기저기서 감동에 젖어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속출하였고, “불교문화가 이렇게 세련되고 멋질 줄 몰랐다!” “세계무대에서 충분히 통하리라!”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뜨거운 예술적 감동은 곧바로 기적 같은 모연의 열기로 이어졌다. 행사 당일 고 율용숙 이사가 1억 원을 약정하시며 포문을 열었고, 보시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당초 100만 원을 기부하려 마음먹고 참석했던 이들이 현장에서 1,000만 원을 약정할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그 결과,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설정했던 초기 목표액 5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당일 모연 약정이 6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재가 여성 불자들의 결집된 힘과 우리 문화의 가능성이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불교여성광장 건립 역사를 정리하는 일환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를 거치며 모연에 동참 해주신 내역을 모아보았습니다. 모연금 내역은 36-37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 노숙령 원장님의 1억 원 쾌척을 비롯해 수많은 108인들과 외부 권선 동참자의 후원으로 15년 만에 약 23억 원이 모였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3천만 원을 쾌척해주신 천양자 회장님(2차), 1,080만원을 기부하신 조은경 원장님(10차) 그리고 신입 12차 108인등 모연금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광장이 우리의 오롯한 독립 공간으로 설 수 있기를 발원하며,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_()

신년맞이 정목스님 법회와 제8회 여성불자 108인의 날

달팽이처럼 느려도 오늘 한걸음을

지난 1월 8일, '신년맞이 정목 스님 초청 법회와 제8회 여성불자 108인의 날 기념식'이 청운·효자주민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원장님들을 비롯해 1차부터 12차까지,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이 넘는 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숫자만으로도 그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12차 108인으로서 수많은 선배 불자님들의 면면을 지켜보며 존경심과 함께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원자(5차 108인) 회원의 개회사로 행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내공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경이 이어지며 홀 안은 고요하고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어 정대련 원장님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원장님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수행·공동체·실천' 세 가지였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상징 삼아, 번뇌와 욕망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며 늘 깨어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 그리고 여성불자 108인이 함께 자유·평화·행복을 이루는 연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발원하며, 자비와 지혜를 개인의 덕목에 머물게 하지 말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자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판단을 유보하라

1부의 주 행사인 정목 스님의 초청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여성 시대, 깨우침과 도전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제목만으로도 빠름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조용한 위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은 15년 전에 쓴 저서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가 영국 출판사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된 이후 미국 시장으로 확산되고, 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 유럽 각국 언어로도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어 번역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하면서, 책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여정을 두고 “달팽이 걸음으로 가더니 혼자 영국까지 가고, 미국을 거쳐 유럽 전역을 돈다”며 “달팽이 보살 대단하시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그 말씀은 자리한 모든 이에게 ‘나의 작은 걸음도 어디든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건네주었습니다.



법문의 첫 번째 축은 인간관계를 대하는 지혜였습니다. 핵심은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성급하게 단정 짓는 습관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프레임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예고가 상대를 규정해버리면 결국 교만해지고, 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경계도 함께 주었습니다.

반면, 상대를 끝까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로 바라볼 때 관계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서 희망이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미움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몰아붙이기보다, 미움이 올라오는 내 마음을 객관화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스님이 제안한 새해 수행법은 깊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상대가 미워질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마



침표를 찍는 대신, “내가 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수많은 조건 가운데 잠시 그런 행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마음속에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수궁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가능성과 기회의 문을 열어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

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이치를 따르니, “오늘의 미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흙의 탄생에서 위대한 공생을 배운다

법문의 두 번째 축은 ‘자연, 그 중에서도 흙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흙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식물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 초기에는 비옥한 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물 덕분에 흙이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3억 7천만 년 전, 척박한 암석 위에서 이끼와 지의류 같은 초기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균류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균류는 산을 내뿜어 바위를 녹이고 미네랄을 흡수해 식물에게 전했고,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을 균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뿌리가 바위를 쪼개고, 쌓인 사체가 유기물이 되고, 미생물이 자라나며 마침내 비옥한 흙이 탄생했습니다. 소나무 역시 척박한 바위 위에서 뿌리 아래 송이버섯 등 균류와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더해지자, 대자연의 연기법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화엄의 세계가 ‘개념’이 아닌 ‘현장’으로 살아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흙을 ‘대보살’이라 불렀습니다. 흙이 없었다면 농작물도, 80억 인구도, 부처님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정목스님과 역대 원장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이 수억 년의 수행 정진으로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얻어먹고 사는 존재라는 표현은 깊은 겸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흙은 인간이 파헤치고 훼손해도 반항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야말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실천이 아니겠냐고 하였습니다. 바위에 붙어 흙을 빚어낸 지의류와, 그렇게 탄생한 흙이야말로 우리가 예경해야 할 위대한 대보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과거 클레오파트라의 몸속 미생물이 지금 내 코끝으로 들어올 수 있듯, 세상 모든 존재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 역시 이곳에 오기까지 대자연이 흙을 빚어내듯 수억 년의 세월을 거쳐왔겠구나” 하고 바라볼 때, 진정한 존중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흙이 온 생명에게 무한한 복을 내어주듯, 우리도 ‘복받기’를 넘어 이해와 배려와 사랑으로 ‘복을 널리 나누는 삶’을 살자는 말씀으로 법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08인회의 지난 발자국과 다음 발걸음

1부를 마친 후 점심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차수별·층별로 나누어 이루어진 공양 자리에는 오곡밥, 된장국, 달걀, 떡, 꿀, 한과가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한 끼의 소박한 기운이 우리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12차 불자들에게는 첫 만남의 자리였지만, 서로의 식사를 살피고 챙기며 훈훈한 이야기 꽃이 피어났습니다. 불자라는 인연 하나만으로 마치 오래된 도반처럼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공양 후 다목적홀로 돌아오니 위즈덤 합창단의 아름다운 축하공연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108인회 회장의 인사말로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이영주 회장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보고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숍, 사찰순례, 바자, 미술전시, 새활용 패션쇼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환경 실천을 넘어 자립 기반을 모색해온 과정이었다고도 하였습니다. 창립 25주년과 12차 108인 선정으로 확대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10년을 위한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1300명 회원의 재능이 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스스로도 하심(下心)과 ‘응무소주 행어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의 자세로 실천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025년 여성불자 108인회 활동 영상 관람에 이어 이임 차수장 감사장 수여와 소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삶으로 실천해온 헌신과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신임 차수장 위촉장을 받은 저는 선배 차수장님들의 소감을 들으며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행의 한 과정이라 여기며, 조용히 각오를 다져봅니다. 108인회 창립 취지문 낭독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공동체의 품격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임 차수장(왼쪽)과 신임 차수장(오른쪽)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불교여성광장이 더욱 빛나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자비로운 지혜를 일깨우고, 각각의 재능을 통해 부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터전으로 이곳이 더욱 깊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달팽이처럼 가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심(信心)과,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

우리 여기 함께 갈까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생각납니다. 아들, 혹은 손자 또래의, 혈기 왕성한 그들이 갇힌 공간에서 숨겼던 애정과 불만과 욕구를 어설피게 드러내던 몸짓과 소리. 우리는 처음엔 당황했고 나중에는 공감했고 다시 오고 싶어졌습니다. 온 마음으로 2년간 그들과 소통하며 불법을 전해주시던 양현정 전 센터장님과 양현애 포교사님, 그리고 꾸준히 봉사하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롭게 맡으신 서혜선 센터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현정 전 센터장님의 회향 소감과, 지난 1월 봉사에 외부 강사로 참가한 김태훈 작가의 후기로 108인 모두에게 그곳의 잔잔한 감동을 나누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진심이 어딘가에서 힘이 되기를

거창한 가르침보다 조건없는 인정이 필요

양현정/9차 108인, (전)교정교회 센터장

고봉중·고등학교에서의 2년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2년 동안 저와 함께 동참해주신 양현애(12차 108인) 포교사님의 도움으로 회향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마음은 단순한 '봉사의 종료'라기보다는 제 삶의 한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의 긴장감과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은 점차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라는 공간은 편견과 오해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 만난 아이들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조금 더 일찍 상처를 받았고, 조금 더 자주 좌절을 경험했으며,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봉사 초기에는 아이들의 거친 언행과 방어적인 태도 앞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내가 건넨 말과 행동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스스로를 의심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조건 없이 존재를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의 어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작은 약속을 지키고, 반복해서 찾아오며, 꾸준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기다릴 때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시간, 별것 아닌 이야기에 웃어 주는 순간,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라는 한마디 속에 담긴 신뢰는 봉사를 하며 얻은 그 어떤 성취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봉사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일방적인지 깨닫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이 아이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

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실패와 실수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낙인’을 경험한 상태였기에, 작은 실수에도 쉽게 자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선택이 곧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 말이 당장 아이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더라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 번쯤은 자신을 믿어 보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2년은 제 삶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타인을 판단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현재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과거와 환경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아이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결과’이자 동시에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봉사를 마치며 가장 크게 남는 감정은 아쉬움과 감사함입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보다도 이 특별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던 기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봉사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고봉중·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은 제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제가 건넨 작은 진심이 힘이 되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자타불이’로 이어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김태훈/ 작가

되짚어 보니 수면 내시경 때 주입된 프로포폴 효과였지 싶다. 아직 덜 깬 몽롱한 상태에서 카톡창을 열어 본 게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됐다. 평소엔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단체방이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호감은 컸던 분의 다급한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소년원 봉사활동에 참가할 남자 어른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두 시간 동안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역할이었다. 문득 공지 올린 분의 난처한 입장이 느껴졌다. 이때 누군가가 가겠다고 불쑥 나서면 얼마나 기쁠까? 그 상황을 머리에 그리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성심당 이야기 하면 좋아할라나요?” 참가는 곧 결정됐다.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살짝 고무된 나는 책 쓴 작가라는 핑계로 성심당 측에 빵 협찬을 요청했다. 다행히 흔쾌하게 보내주기로 했다. 아이들 앞에서 40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띄워가면서 한두 시간 강의한 경험이 제법 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보람 있는 일에 참여하는 터라 마음 한 켠이 뿌듯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행사 공간에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울 수 없다는 사실이 전달되는 순간 머리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균열은 곧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전달자는 아이들의 ‘지적 욕구’를 감안해 달라는 조언까지 곁들였다. 간혀 지내는 아이들이다. ‘공자님 말씀도 한두 번’이다. 아이들 입장에서 나 같은 어른들이 얼마



나 자주, 또 많이 찾아올까 상상해보니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통제된 공간에서 간혀 지낸 경험을 갖고 있다. 나도 20대 중반 약 28개월을 철원 지역에서 간혀 지냈다. 간혀 지내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외부인의 방문이 마냥 반가울 리가 없다.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원망의 대상도 된다. 가난하고 상처받은 마음은 어설픈 동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입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졌다. 솔직히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냥 그 문자를 모른 채했더라면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엇질러진 물이다. 무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그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스스로를 고치는 것뿐이었다.

일단 이야기할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성심당의 역사와 경제철학 같은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들어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법한 내용들은 최대한 잘게 쪼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면 '6.25전쟁', '대전', '밀가루', '튀김소보로', '화재사건', '소셜미디어', '대전역', '노점의 도시', '딸기시루' 등을 키워드로 뽑아냈다. 이야기 형식도 강의식보다는 문답식으로 진행해보기로 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기로 하고, 약속의 날 일요일이 다가왔다. 차를 몰고 가면서 얼마나 심호흡을 했는지 모른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면서 낯선 세상에 진입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종교실은 예상보다 많이 좁았다. 20여 명의 아이들은 바닥에 웅기종기 붙어 앉았고, 나는 그들 바로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삼귀의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예식을 간단하게 치른 뒤 내 서서가 됐다. 아이들 앞에 서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일요일 오후에 하는 종교활동 시간이다. 종교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친구도 없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바깥세상에서 가져온 간식이 최대 관심사이겠다 싶었다. 그래서 성심당이 협찬한 '순수마들렌'부터 꺼내들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행히 아이들 대부분이 성심당을 알고 있었다. 준비한 키워드에도 제법 반응을 보였다. 중간에 어깃장을 놓는 친구들이 없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 참여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었다. 퀴즈를 낼 때는 심지어 뜨겁기까지 했다.



그러저러 내 시간이 끝나고 테이블 별로 둘러 앉은 간식 시간이 이어졌다. 나는 제일 뒷자리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가까이 앉으니 속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울봄에 출소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그중에 둘은 출소한 뒤 부모님 모시고 꼭 성심당에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아무개 대학 역사교육과에 합격한 한 친구는 내가 낸 다른 책들도 찾아 읽겠다고 했다. 순간 여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서 오히려 내가 치유 받는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미국인 벨 나딩스는 '돌봄의 상호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다. 그녀는 돌봄이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돌보는 사람이 제아무리 정성을 다하더라도 돌봄 받는 이가 그 행동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돌봄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에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실제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둘은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니다. 돌보는 사람도 돌봄 받는 이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돌봄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존재들이 의미 있게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다. 만남의 순간에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에 공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소년원에서 내가 받은 위로 또한 다행히 그들과 의미 있게 연결됐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싶다. 🍀

마침내 소를 찾은 얼굴을 마주하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명오 스님

2026년, 사람들은 AI가 내놓은 답을 보며 놀라고, 주식 창을 들여다보며 조금해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흘러주는 대로 밤을 보낸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지금 당장. 세상은 그쪽으로만 달린다.

그 소란에서 잠시 눈을 들어 계룡산 쪽을 바라본다. 충남 공주, 1300년 된 계곡 물소리 끝에 동학사(東鶴寺)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릴 적 말썽꾸러기 소를 쫓아 온 산을 헤매던 경남 합천의 막내딸이 지금은 학장(學長)으로 앉아 있다.

“좋은 스님이 못 되면 부모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것이다”

처음 마주한 스님은 예상보다 훨씬 또렷했다. 목소리도, 말투도, 눈빛도. 어떤 질문을 던져도 잠깐의 침묵 후에 곧장 답이 나왔고,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 오래전에 이미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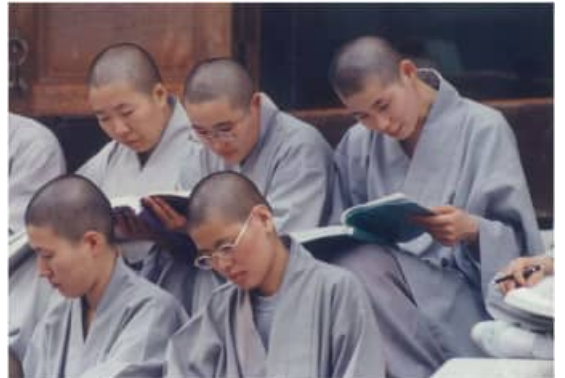
언니 둘이 이미 출가한 집의 막내딸이 스물넷 봄날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면, 3개월 안에 시집 보내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가하겠다는 내용이였다.

“퇴근하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출가를 결정한 순간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떠나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며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좋은 스님이 못 되면 부모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이 한참 동안 귓속에서 맴돌았다. 딸을 붙잡는 대신 딸이 가는 길에 평생 짊어질 말 한마디를 엮은 것이었다.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배웅이였다. 스님의 그 또렷함이 어찌면 그날 어머니한테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반들과 책 읽는 명오스님

소 치는 아이의 심우도

스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노트에 펜을 올려놓은 채 그냥 듣고 있었다. 경남 합천 종갓집 막내딸, 5남매의 딸 넷 중 막내. 집안의 재산으로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가 어찌나 고약하고 영리했던지 걸핏하면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 온 산을 헤매야 했다. 소 발자국을 쫓고, 어디선가 들려올 워낭소



앞줄 왼쪽 세 번째가 명오스님이다

리에 귀를 세우면서.

“그 소 찾는 일은 제 어린 시절의 낭만이었고 소중한 추억이예요.”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꺼냈는데, 듣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그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다.

중학생이 되어 스님이 된 큰언니를 따라 처음 찾아간 직지사에서, 대웅전 외벽에 그려진 그림 하나 앞에 발걸음이 멎었다고 했다. 심우도(尋牛圖), 소를 찾아 헤매는 목동이 마침내 참마음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그림이었다.

“어렸을 때, 백 번도 넘게 반복했던 그 소 찾기에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겼을 줄이야.”

그 말을 할 때 스님의 얼굴에 잠깐 웃음이 스쳤다. 그날 법

당으로 달려가 스무 살이 되면 기필코 출가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그때, 스님 나이 열넷이었다.

화엄경 80권을 옮겨 쓰는 손이 곧 수행

동학사 승가대학, 동국대, 호주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동국대 박사. 출가 후 스님이 걸어온 길이다.

시드니 유학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스님이 피식 웃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였고, 어느 날 도서관에 짜장면 냄새가 진동했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했다. 식당 다녀올 시간에 논문 한 줄을 더 쓰는 사람이었다.

지도교수 첫 면담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스님, 여기는 돈 주고 학위 사는 곳 아닙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받아쳤다.

“교수님, 한국도 돈 받고 학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또렷했다. 당시에 도 그랬을 것이다.

논문 미팅 전날 밤 이야기를 꺼낼 때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낮아졌다.

“큰 두 손이 등을 밀어주는 느낌이 왔어요. 그 순간부터 논문이 써졌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였어요.”

다음 날 지도교수가 물었다.

“스님, 이거 스님이 쓴 게 맞나요?”

스님은 답했다.

“그럼요, 교수님.”



시드니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귀국 후 동학사에서 지내던 어느 날, 뜬금없이 암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도로 갔다. 6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스님은 화엄경 80권을 한 자 한 자 손으로 옮겨 쓰고, 법화경과 열반경도 사경했다. 붓을 잡은 손이 곧 수행이었다. 스님이 《열반경》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가 처음으로 달라졌다.

“호주 도서관에서 《열반경》을 읽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부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는 상실감이 너무 크게 와 닿아서. 그때부터 눈물 없이 부처님의 입멸을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내내 흔들림 없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젖어들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박사 논문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가 됐고, 논문은 불교출판문화협회 학술상을 받았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묻다

2024년, 스님은 동학사로 돌아와 제23대 학장이 됐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다시 채워지는 사이, 오늘의 화두를 꺼냈다.

“요즘 온 세상이 AI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AI에게 답을 구하는데,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은 창밖 계룡산 쪽을 잠시 바라봤다가 역시나, 망설임 없이 답했다.

“AI는 답을 줍니다. 빠르고 그럴싸하게. 그런데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음입니다. 자등명(自燈明),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어요. 어릴 때 소를 찾으러 온 산을 헤맸어요. 소리를 죽이고 워낭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많은 답 속에서 정작 자기 물음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식 과열과 조급함에 대해 묻자 스님의 말은 더 짧고 단호해졌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건 어리석음, 치(癡)입니다. 남이 오르는 걸 보며 조급해지고, 지금 안 들어가면 나만 손해라는 두려움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 수행은 욕망을 끄는 게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스님이 쓴 책의 프롤로그 한 줄을 꺼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오롯이 나일 수 있는 길, 출가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스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이면 되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마주했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동학사 강원외 겨울

계룡산 계곡의 물소리가 동학사 돌담을 적시며 흘렀다. 천삼백 년째 흐르는 물이었다. 그 옆에서, 어린 시절 소를 찾아 온 산을 헤맸던 막내딸이 마침내 소를 찾은 사람의 얼굴로 앉아 있었다. 🍵

‘보고 싶고 함께 놀고 싶어’ 절에서 만난 불자 가족

용문사 은행나무에 해맞이 소원을 걸다

개학을 앞두고 아이와 부모 모두 힐링이 절실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년이 된다는 것에 긴장했고, 부모는 장장 두 달이라는 긴 겨울방학에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가족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이도, 엄마와 아빠도 모두 만족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절에서 만날까?

여름 정각사에서, 늦가을 글램핑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불교여성개발원 가족과 영108인 가족의 인연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앞두고 템플스테이를 계획할 때, ‘우리 만난 적 있어요’ 불자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좋아하며 동참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가 아닌, 가족이 아닌 ‘함께 놀 수 있고, 보고 싶었던’ 든든한 언니, 형아, 누나, 동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에 그 든든한 울타리를 부처님 도량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동반이 가능한 서울 근교 템플스테이를 찾는 것도,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참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춘 곳을 찾는 것도 모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김은 어린이들만 드립니다

2월 28일 용문사에 모인 아이들은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계



곡을 따라 템플스테이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방사를 배정받고 법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잔디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스님의 안내와 함께 용문사 도량을 둘러본 후 저녁 공양을 했습니다. 공양간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김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른들이 김을 요청하자 '김은 어린이들만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신 공양 보살님의 말씀에 아이들의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스스로 설거지를 마친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연못과 은행나무를 구경하기도 하고 돌맹이로 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두근두근 타종 체험과 신나는 캠프파이어

용문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대망의 타종 체험이었습니다. 범종루에서 은행나무잎이 새겨진 종을 직접 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체험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종을 치기 전의 설렘, 종을 치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과 귀로 들려오는 커다란 소리는 오감을 떨리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친 후 잔디 광장에서 이어진 캠프파이어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주전자 가득 내어주신 따뜻한 연잎 차와 찐 고구마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따뜻함과 달콤함을 나눴습니다. 사찰에서 대중을 처볼 수 있다니!





깜깜한 밤, 별을 보면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수 있다니! 아이들에게 사찰이, 예불이, 부처님이, 템플스테이가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부처님 곁에서 한걸음 더 성장하다

사찰의 하루는 새벽 예불부터 시작됩니다. 일찍 일어난 가족들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일출을 보기 위해 산행에 나섰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시시각각 붉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해를 기다리는 시간은 어찌나 지루하던지요! 하지만 마침내 구름을 뚫고 해가 올라오자 지루함은 순식간에 모두 날아갔습니다. 용문사의 마스코트인 고양이까지 산에 올라 일출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단주 만들기와 소원 쓰기를 마치자 어느새 퇴소 시간이었습니다. 1,100살이 넘는 은행나무에 소원지를 걸면서 아

이들과 부모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졌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원지가 펠러이고 있어도 용문사 부처님과 은행나무가 ‘내’ 소원과 ‘우리’ 가족 소원은 꼭 들어주실 것만 같아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원지를 걸기 위해 은행나무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소원을 걸고 돌아오면서, 아쉬움을 달래듯 용문사 계곡에서 물수제비를 뜨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다시 만날 지를 손꼽아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어떤 절에 갈까?’ ‘우리 절에 갈래?’라고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도, 아이들도 부처님 곁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

관음 큰스님 숨결 가득한 직지사 중암

‘마음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불교의 오방 가운데 황색으로 중방에 자리한 산, 황악산. 그 황악산을 등지고 경북 김천 직지사의 제1 암자인 중암은, 도량 전체가 마치 화엄의 세계처럼 장엄하고 단정한 기운으로 사람을 맞는다. 숲길의 숨결과 돌계단의 걸, 법당과 요사의 배치가 어우러져 “여기서는 도량이 스스로 사람을 이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중암은 1983년 터를 닦고 1986년 인법당 기공식을 올리며 도량의 형틀을 갖추었다. 그때부터 이곳에 주석하시던 직지사 조실 관음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한 사람의 스승이 머물던 도량이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건물의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간 발원과 서원, 그리고 배움의 숨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량이 포교를 한다’는 중암과의 40년 인연

나와 중암의 인연도 어느새 40년 가까이 되었다. 관음 큰스님은 직지사 장학생으로 일본 용곡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신 뒤, 천태산 무문관에서 6년 결사로 수행 정진을 마치고 나오신 분이다. 우리나라에 유식학을 처음 소개하셨고, 그 학덕과 수행이 깊어 불교계에서 누구나 우러러 뵈는 스승이었다.



내가 중암 법회에 본격적으로 참석한 것은 1988년 봄이다. 나는 능인선원에서 기초 교리와 경전반을 마칠 무렵이었고, 큰스님은 이미 세수 70을 넘기신 때였다. 서울에 살던 내가 중암에 가려면 새벽부터 길을 나서야 했다. 직지사 일주문을 지나 숲길을 오르고, 다시 도량

을 소개하셨고, 그 학덕과 수행이 깊어 불교계에서 누구나 우러러 뵈는 스승이었다. 내가 중암 법회에 본격적으로 참석한 것은 1988년 봄이다. 나는 능인선원에서 기초 교리와 경전반을 마칠 무렵이었고, 큰스님은 이미 세수 70을 넘기신 때였다. 서울에 살던 내가 중암에 가려면 새벽부터 길을 나서야 했다. 직지사 일주문을 지나 숲길을 오르고, 다시 도량

을 향하여 600미터쯤 올라 도착하면 마음이 먼저 정돈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었지만, 나는 그 하루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겼다. 우등생 불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개근하는 불자가 되겠다는 마음이였다.

큰스님께서 어느 관음재일에 “이곳 중암은 도량이 포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중암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말이다. 단아한 인법당을 지나면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영산보전이 있고, 그 아래로는 큰스님의 요사채가 단정히 자리한다. 다시 약 100미터 남짓 가파른 길을 오르면 수미산을 상징한다는 정자, 묘고대가 나온다. 도량의 길이 곧 수행의 길처럼 이어지니, 발걸음이 절로 낮아지고 합장이 저절로 나온다.

관음 큰스님이 자주 머무르셨다는 방 앞 바위에 올라서면 산세는 수려하고, 아래로는 직지사 경내와 김천 시내가 멀리 펼쳐진다. 한번은 큰스님 뒤를 따라 묘고대 쪽으로 오르다, 길을 가로지르는 뱀을 보셨다. 스님은 지팡이로 길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서 비키라, 눈에 띄지 않게.” 큰스님은 늘 “생명은 하나다. 네 생명 내 생명을 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말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으로 살아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나는 중암에 가면 꼭 묘고대에 오른다. 정자에 서면 태양과 공기, 바람과 구름, 산과 나무가 한꺼번에 나를 감싼다. 두 팔을 벌려 대자연을 안아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가”라는 감각이 “그 작은 나도 이 자연과 하나”라는 안도감으로 바뀐다. 나는 법성계를 염송하며 천천히 정자를 돈다. 빠를수록 마음은 흠여지고, 느릴수록 마음은 제 자리를 찾는다.



큰스님과 함께(2004년)



새천년 묘고대의 새벽에 빛이 내리다

그 묘고대에는 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새벽이 하나 있다. 1999년 12월 31일, 그날도 관음재일이었다. 우리 부부는 중암에서 관음재일을 참석하고 하루밤을 묵기로 했다. 다음날 2000년 1월 1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그 위 묘고대로 올라갔다. 2000년의 일출을, 즉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새해를 중암 묘고대에서 맞이했다. 세기의 경계를 넘는 해를 수행의 도량에서 맞는다는 경험은 말로 다 옮기기 어렵다. 그 빛은 하늘에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비추어 들어와, 오래 묵은 생각들의 먼지를 걷어내는 듯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자리와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나의 수행 여정에서 금니 금강경 병풍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금니로 사경한 금강경 8폭 병풍을 53점 제작했다. 보름이면 외부와의 만남을 끊고 사경을 시작해 관음재일 전날 마무리했고, 관음재일에는 곱게 싸 들고 가 법단에 올린 뒤 표구를 맡기곤 했다. 내 수행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한다면 금강수를 심고 길러 온 과정이다. 처음 “금강경을 금니로 쓰라”고 하며 주저하는 나에게 함께 100일간 전국 사찰을 돌며 원력을 세워주신 무명스님, 병풍 100점을 목표로 90점을 쓰신 뒤 손이 떨려 더는 쓰지 못한다며 사경 방법을 전수해주신 무구스님, 그리고 인연의 문을 열어준 여러 선지식들이 그 뿌리였다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록 다져주고 큰나무로 자라게 한 이는 오로지 관음 큰스님이었다. 큰스님 입적 후에는 10년간 진퓨터 선사의 티베트 선관선 수행을 수련하며 또 다른 결의 시간을 거쳤으니, 그 또한 금강수를 무성하게 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마음의 기록이 나의 자전적 수필집 『그저 마음이구먼!』으로 이어졌다. 제목은 관음 큰스님께서 내게 던져주신 한마디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처음부터 선명했던 것은 아니다.

오늘도 나의 보리수를 가꾸며 기도한다

내 불교 인연은 어린 시절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를 따라간 데서 비롯되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천수경을 읊으셨고 부처님을 공경하던 분이였다. 결혼 후 나는 한동안 교회에 나가기도 했으나, 서예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친척이 반야심경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새집으로 이사했을 때 사촌동생에게 집들이 선물로 받은 도자기 포대화상도 그 인연의 연장선이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포대자루를 낀 포대화상의 손이 떨어져 있었다. 안타까워 조각을 찾아 붙여주었는데, 그날 밤 꿈에 포대화상이 나타나 “내 손 붙여주어 고맙다. 너는 ○○을 찾아라!” 하고 큰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놀라 잠에서 깼다. 꿈이 너무 선명해 잊히지 않았고, 나는 ○○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앓이가 시작되었다. 붙들수록 더 미로 같았고, 해를 넘겨도 답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찾기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몇 해 뒤, 어느 관음재일 아침이었다. 나는 큰스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레 그 꿈 이야기를 꺼냈다. 긴장하며 여쭙는 내게 큰스님은 환한 미소로, 너무도 쉽게 말씀하셨다. “그저 마음이구먼!” 그토록 오래 앓이를 했던 ○○이 결국 ‘마음’이라는 두 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왈칵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함께 올라왔다. 『그저 마음이구먼!』이라는 제목은 그날의 깨우침과 눈물을 그대로 품고 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가 다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화두로 다가왔다. 큰스님은 또 이렇게 일러주셨다. “마음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 찾는 순간 마음속에 안과 밖이 생기고 너와 내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음은 현재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도 이미 가지고 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쓰면 된다.” 나는 그 말씀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맞닿아 있음을,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알아갔다.

이제 나는 금강수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와 나눔이다. 수행이 자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스승들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피라는 타력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2023년 말부터 불교여성개발원과 함께한 2년여의 시간도 내게는 새로운 수행이었다. 처음 가는 길은 어색했고 걸음은 뒤뚱거렸지만, 봉사가 실천이라는 수행임을 몸으로 배웠다. 여성개발원의 걸음은 지혜로운 불자 여성들의 중생 불사 모 내기와 같다. 한 호흡으로 대열을 맞추고 함께 가꾸어야 수확의 기쁨도 따른다. 장애가 따른다면, 그것은 어찌면 ‘나’를 내세우는 상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불교여성개발원의 108인은 각자가 자기 보리수를 가꾸는 일이다. 그 보리수들이 서로 엮여 숲이 되기를, 지혜로운 여성의 길이 한층 무성해지기를 나는 중암에서, 또 묘고대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진심과 정성으로 금강경을 읽고 칭념염불하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발원한다. 

요즘 직장인의 힐링 워크숍

‘절’의 기운과 무게가 주는 치유의 공간

얼마 전 일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진행한 ‘임직원 힐링 워크숍’에서 ‘직무 교육 특강’을 맡게 됐다. 과연 내가 누구에게 힐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힐링이라곤 ‘쉽게 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뿐이라 무엇을 공유하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찾은 교육장, 반갑게도 지방의 조용한 사찰이었다. 템플스테이 힐링 워크숍이었다. 이들은 왜 ‘절’이라는 공간을 찾았을까?

도시는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늘 긴장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연결, 과도한 정보, 비교와 성과 중심의 문화가 뒤섞여 작용하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축적한다. 이런 환경을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는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장소로 ‘절’이 기업의 워크숍 공간으로 선택받고 있다.

2030 세대도 적극 참여하는 사찰 명상

템플스테이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직장인, 청년, 기업 단위 참가자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별한 수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닌, 업무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한 공간으로 환영받기 때문이다.



2030 젊은 세대가 '사찰'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명상이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붙잡지 않으며 흘러보내는 훈련은 신경계의 각성을 낮춘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곧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는 효과로 바로 이어진다.

'힐링 템플스테이 워크숍'을 찾았던 3040 직장인들은 도심의 소음을 뒤로 한 채 정갈한 수련복 차림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없는 빈손과 가부좌가 어색한 듯 몸을 뒤척이기도 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자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셀 새 없이 울리던 메신저 알림음 대신 댓잎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모니터 불빛으로 시큰하던 눈가에도 '쉼'을 만들어주는 곳. 성과에 쫓기며 경쟁으로 가빠졌던 호흡을 다시 정돈해 느릿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절'이다.

사찰을 둘러싼 환경은 명상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공적인 소음 대신 들려오는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종소리는 곤두선 뇌신경을 부드럽게 분산시켜 마음의 긴장과 인지 부담을 내려놓게 한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회복 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으로 설명한다. 도시의 복잡한 자극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오는, 예측 가능한 소리를 들을 때, 소진된 집중 자원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고요의 시간

결국 템플스테이는 특별한 치료기법이 아니라, 감각 자극을 낮추고 리듬을 회복하는 구조를 통해 마음을 돌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이 '심리 안전감'과 '관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접근법의 하나로 사찰의 명상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힐링 워크숍'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절에서 연수를 받는다고 하길래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왔다. 모두 반신반의였을 거다. 그런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나니 스트레스를 내려놓게 됐다. 참신한 워크숍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렇듯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의 하루, 모든 직장인의 로망일 것이다.

2030 젊은 세대가 사찰에서 경험하는 활동은 마음 돌봄을 실천하는 장이다. 좋고 나쁨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고요를 느끼면서 자신의 정서 조절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낮추는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만든다. 이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잇기 쉬운 상호 존중의 감각을 회복시켜 준다. 아마도 '절'이라는 공간이 주는 기운과 무게 덕분일 것이다. 그래서 사찰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라 재정비의 공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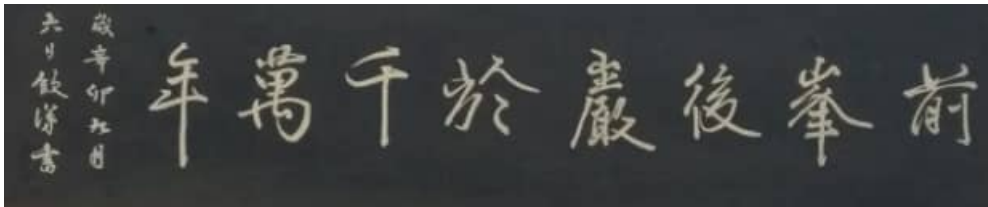
천 오백만을 울린 단종의 그녀

65년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낸 정순왕후

단종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단종 성지 순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영화를 본 후 '단종 오빠'의 비극을 슬퍼하며 단종의 유배지 강원도 영월 청령포를 답사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왕실 원찰과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사랑 받아온 세조의 광릉과 봉선사보다 단종의 유배지가 더 사랑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단종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정순왕후의 청정한 수행 덕분인지도 모른다.

조선 왕실의 이혼, 재혼, 간택

단종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처음으로 왕궁에서 태어난 원손으로 탄생부터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첫 번째 왕이었다. 그렇기에 단종이 왕비를 맞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태조 이성계부터 제5대 문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혼인한 몸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단종의 '왕비 간택'은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정순왕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영조 친필_정업원구기 현판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는 과거에 오르지 못했으나 외모가 뛰어났던 여동생이 세종의 막내아들 영웅대군의 부인이 되면서 작은 벼슬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송씨를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혼시킨 후 영웅대군을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시누이 정씨와 재혼하게 한다. 세종의 마음은 영웅대군이 단종을 보호하길 바라는 것이었으나 이는 후에 비극이 되었다.

영웅대군은 이혼한 송씨를 잊지 못했고, 세종 승하 후 수양대군은 몰래 송씨와 영웅대군의 만남을 도왔다. 단종 즉위 후 영웅대군은 마침내 정씨와 이혼하고 송씨와 재결합한다. 이 과정에서 영웅대군의 마음은 수양대군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수양대군은 송현수의 딸을 알게 되어 그녀를 단종의 왕비로 간택한다.

1년 남짓 왕비였던 비운의 정순왕후 송씨

하지만 단종의 혼인은 시작부터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문종의 삼년상이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중에 혼인한다는 것은 성리학 통치 이념으로 세워진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만족했다. 여동생과 딸 덕분에 출세한 송현수의 능력과 인맥은 조금도 위협적이지 않았고 송현수의 아내와 한명회의 아내는 사촌이었기에 여러모로 다루기 쉬웠다. 무엇보다 송현수의 딸은 고모를 닮아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고 단종은 왕비와 사이가 좋았다.

정순왕후가 왕비의 자리에 머문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정순왕후도 대비가 되었다. 세조3년(1457) 상왕의 신분으로 창덕궁에 머물던 단종은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자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고, 그해 세상을 떠났다. 이때 단종은 17살, 정순왕후는 18살이었다.



정순왕후 초상화 출처_이도경 작가 블로그

정업원에서 단종의 극락왕생 기도하며 여생 보내


단종이 세상을 떠난 후,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18살에 과부가 된 정순왕후의 신분은 노비로 격하된다. 그러자 여러 신하가 세조에게 송씨를 달라고 청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를 탐한 것이었다. 이에 세조는 '송씨의 신분을 노비로 두되 노비로 사역하지 말게 하라'는 명을 내려 아무도 정순왕후를 노비로 삼을 수 없게 했다.

폐서인 된 후 정순왕후는 왕실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녀는 정업원으로 들어가 단종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며 여생을 보냈다. 정순왕후는 허경(虛鏡)이라는 불명을 받았으며, 함께 출궁한 시녀 5명도 모두 출가한다. 15살에 왕비가 되고, 18살에 폐서인이 된 송씨가 정업원에서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출가 수행자로 보낸 여생이 무려 65년이었다.

정순왕후는 숙종24년(1698), 단종 복위와 함께 왕후로 복위되었고 신위도 종묘에 모셔졌다. 영조47년(1771)에는 영조가 친히 비와 비각을 건립하고 '정업원구기'라는 친필을 내려 정순왕후의 정절을 기렸다. 세조와의 친분과 한명회와의 인맥을 지닌 아버지로 인하여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나 지위와 영광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단종을 위해 기도하며 60년이 넘는 세월을 출가 수행자로 보냈던 정순왕후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의 옛 이름인 정업원은 고려 공민왕의 왕비 혜비가 출가하여 주지로 머물렀던 천년고찰이다. 무학대사의 조언으로 이성계에 의해 중창된 후 왕자의 난 당시 경순공주(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딸)가 이곳에서 사발하였고 이방원의 손에 죽은 세자 의안대

군(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막내아들)의 부인 심씨가 주지가 되었다. 후에 세종의 후궁이었던 신빈 김씨도 세종 승하 후 정업원에서 출가해 여생을 보냈다. 즉 정업원은 왕비와 공주 그리고 후궁 등 왕실 여성들이 남편을 잃은 후 출가하여 여생을 보내는 비구니 사찰이다. 



정대련
원장
6차 108인
전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영주
부원장, 108인회 회장
7차 108인
이영주컬렉션 대표



피상순
부원장
3차 108인
우리사랑정신과 원장



노인자
부원장
5차 108인
W.호두마을 대표



임손덕
부원장
5차 108인
전NGO지비를나르는수레꾼 재무



남동현
부원장
6차 108인
전명문고등학교 교장



이순재
부원장
8차 108인
소이청소년과 의사



정형은
부원장
8차 108인
전사카디타코리아 공동대표



윤정로
부원장
9차 108인
전 카이스트대 교수



김여주
부원장
10차 108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혜남
부원장
11차 108인
전상해한글학교 설립자

지원장
차수장



김옥주
강원지원장
7차 108인
전매캘러리 대표



이정숙
대구경북지원장
11차 108인
음식디미방 대구경북지원장



조은수
1-3차 차수장
2차 108인
서울대 명예교수



황외숙
4차 차수장
4차 108인
전서울교사불자연합회회장



양경운
5차 차수장
5차 108인
화가



강영자
6차 차수장
6차 108인
조계사 의료팀장



인애린
7차 차수장
7차 108인
봉은사 합창단



이영희
8차 차수장
8차 108인
사카디타코리아 운영위원



윤정로
9차 차수장
9차 108인
전 카이스트대 교수



고은자
10차 차수장
10차 108인
전령택남부노인복지관 관장



이현숙
11차 차수장
11차 108인
경동대 교수



박현주
12차 차수장
12차 108인
공감소통학교 대표

이사



손재현
2차 108인
동국대체육교육과(무용)교수



원유자
4차 108인
대불련총동문회 상임고문



김순철
6차 108인
전라사라패션 원장



최희영
7차 108인
다도 전문가



전영숙
8차 108인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양정희
9차 108인
전봉은사신도회 감사



양현정
9차 108인
로즈힐어린이집 원장



박정하
10차 108인
전봉은사 신도회 조직부장



이윤희
10차 108인
이윤희명성순례자모임 원장

감사



황순연
업무감사
7차 108인
김포 평화나비 이사장



형양자
회계감사
10차 108인
나눔카페 대표



정대련
이사장
6차 108인
전통덕여자대학교 교수



고은자
가족지원센터장
10차 108인
전경태남부노인복지관 관장



유현숙
건강법상지킴센터장
12차 108인
태진농원 대표



서혜신
교정교회센터장
11차 108인
대진대학교 교수



노인자
다문화행복가족센터장
5차 108인
W.호두마을 대표



김영희
명성리더십센터장
9차 108인
청명현 대표



이정호
미술심리상담
2차 108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수원감독치료사



김선숙
불교여성연구소장
5차 108인
미음의과학연구소 소장



강영자
생명존중운동본부장
6차 108인
조계사 의료팀장



최혜경
수익사업단장
2차 108인
정법신행회 회장



황경자
이사
8차 108인
위즈덤합창단 단장



이영미
지혜이카데미 대표
6차 108인
(주)세미스 대표이사

이사



김진
2차 108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명순
2차 108인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



손경수
3차 108인
김안과 원장



정진희
3차 108인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강사



박종덕
5차 108인
Space 해인스튜디오 소장



김점란
6차 108인
전북대의대회 소장



정은희
6차 108인
골드글래스 부대표



인기순
8차 108인
약사



안영
10차 108인
왕궁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조은경
10차 108인
대구수성이비인후과 원장



조재란
10차 108인
전대구경상고등학교 교사



권숙교
11차 108인
김연장법률사무소, 상근교로



구윤임
11차 108인
국제포교사



김수향
11차 108인
위덕대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용란
11차 108인
김안과 병원 원장



남혜경
11차 108인
부디스트코칭, 시니어라이프 코치



이화신
10차 108인
선림사 무애원 봉사



정철재
11차 108인
도서출판 심화 대표



김주원
12차 108인
경희 김주원 한의원 원장



유유희
12차 108인
유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은정
12차 108인
지성이음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감사



황순연
업무감사
7차 108인
김포 평화나비 이사장



형양자
회계감사
10차 108인
나눔카페 대표

○ 미국 대학생들 한국불교 체험 위해 방문

지난 3월 8일 낮,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데이비슨 칼리지(Davidson College) 학생 14명이 지도교수 두 명과 불교여성개발원을 방문했다. 이 대학에는 종교학과가 없다. 그 대신 각 종교 전통별로 채플린(교목)이 있어 학생들의 종교생활뿐 아니라 대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준다. 불교 부분은 동문 Tom Rhodes가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그는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으며 선(禪)에 귀의하였고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후 후배들을 위해 불교기금을 만들었다. 불교 교목 Ivan Mayerhofer는 미국에서 오래 포교하셨던 고 삼우(三友) 스님의 제자로 스님에게서 15년전 수계를 받으면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이들은 본 원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한국불교 체험 일정을 시작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Religious Traditions of Korea, with a Focus on Buddhism>이라는



수불스님과 천양자 회장님

필자의 강연 시간에는 학생들이 진지하고 활기차게 질문을 해주어 무척 보람이 있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해 보았지만 이처럼 생동감 있는 수업은 드물다. 배달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하며 개발원의 각 층도 돌아보았다. 3층에서는 마침 다문화센터 일요법회가 진행 중이었다. 학생들은 본원이 여성불교의 구심점으로서 그동안 해온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감동을 표하였다.

다음날 일행은 오대산 월정사로 이동하여 사흘간 염불·참선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가졌다. 필자는 이틀간 참석하였는데 상원사까지 함께 걸으며 학생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로 돌아와 흥대 JustBe 선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에 출국하였다.

학생들을 배웅한 후 Ivan은 일주일간 예정으로 수불 스님을 뵈러 부산 안국선원으로 내려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다. 필자는 이 면담을 오래전에 주선한 인연으로 동행하여 큰스님과의 면담을 통역해 주었다. 스님께서는 Ivan에게 도안(道安)이라는 법명을 내리시고, 그가 가져온 여러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셨다. 천양자(1차 108인) 신도회장님께서 배석하시면서 크게 환영해 주셨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학생들은 살아있는 한국불교의 현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돌아간 것 같다.

• 글 조은수(2차 108인)

○ 임시이사회 · 운영위원회 · 정기이사회

2025년 12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 해 동안 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을 이끌어준 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찬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원 25주년 기념식 및 제12차 108인 선정식에 대한 평가와 재무 보고를 진행했다. 또 병오년 신년맞이 초청 법회 법사님 선정의 건도 확정했다. 2026년 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신입 임원 선





출의 건을 의결하고,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2월 12일에는 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정기 이사회를 열어 사업 및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사)지혜로운여성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월 26일 열린 정기총회에는 31명이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법무부 서울소년원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2025년 12월 29일 의왕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회의실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교정교회센터가 25년간 이어온 촉법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윤태영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상식에는 개발원 정대련 원장과 양현정 교정



교회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교화와 건강한 성장을 돕는 봉사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불교여성개발원 신년맞이 정목스님 초청 법회

1월 8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정목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정목스님은 “여성시대, 깨우침과 도전: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주제로,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조금씩 함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



의 지혜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다 함께 새해의 힘찬 원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성불연대 운영위 참석

정대련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은 1월 23일 오후 12시 강호한정식에서 열린, 성평등 불교연대 신년인사를 겸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정 이사장은 성평등정의연대, 불교환경연대, 나무인권상담소 등 성불연대 소속 기관 대표들과 함께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하였다.

○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실시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2월 5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2025년도 사업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검했다. 조은수 업무감사와 형양자 회계감사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감사 결과를 2월 26일 정기총회에 보고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샤카디타코리아 정기총회 참석

정대련 원장은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에서 열린 샤카디타코리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샤카디타코리아 공동대표인 광용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과 정형은 대표(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8차 108인)가 임기를 마치고, 진명스님과 이영희 대표(8차 108인)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 불광장학회 장학생 추천, NGO 활동가 장학금 과 다문화가족 장학금

2026년 2월 22일 오전 10시 불광사에서 불광장학회 장학금 전달이 있었다. 정대련 원장이 추천한 사무국 문윤정 교육연구팀장(NGO 활동가 부문)과 행복가족센터 이옥빈 회원의 가족인 서정민 학생(다문화가족 부문)이 각각 장학금을 수상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금강경기도 1,400일 회향과 1,500일 기도 입재

3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금강경 독송 기도 동참자 7명이 선림사를 방문하여 수행정진기도 1,400일(금강경 독송 기도 1,100일)을 회향하고 1,500일(금강경 1,200일) 기도를 입재하였다. 정대련 원장, 김선옥 고문 등 금강경기도 대중은 따뜻한 잠자리와 정성 어린 공양을 준비한 선림사 보우법사의 환대를 받으며 1박 2일 수행 정진하였다. 10일 저녁 예불 후에는 3년여간 매일 함께 새벽 금강경 독송 기도방을 열었던 고 노숙령 원장을 추모하



는 시간을 가졌다. 노숙령 영가를 위한 49재 영단을 마련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보우법사는, 법요집을 바탕으로 천도재의 의미와 제문 등 49재의 절차를 상세히 대중에게 안내했다. 정대련 원장이 법사의 마음을 받아 49재 비용을 보시하고, 김선옥 고문이 영단에 큰 화분 2개를 공양하며 뜻을 더했다.

3월 11일 새벽 예불과 아침 공양 후에는 수행정진기도 1,401일 입재식으로 금강경을 칠독(七讀)하며 정진하였다. 점심 공양 후 영단에 올렸던 과일과 봄죽으로 빚은 인절미를 나누어 받아 귀경길에 올랐다. 보우법사가 귀갓길 차비로 전달한 보시금은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으로 회향되었다.

○ 대구·경북(대경) 지역 모임



2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 대경 지역 모임은 12차 108인에 선정된 대경지역 회원들을 환영하며 이정숙 대표 자택에서 대구경북 지원 창립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년 옷놀이를 하며 회원 간 우의를 다졌다.

○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임원회의

2월 5일과 3월 6일에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임원회의가 있었다. 2월 회의에서는 설날을 맞아 온라인 바자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 차수별 판매 품목을 정하였다. 3월 5일 회의에서는 3월 29일 예정된 춘계 사찰 순례의 차량과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또한 108인회 회의에서는 차수별로 돌아가며 참석자 식사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2월 회의에서는 이영주 회장이 비빔밥을 준비하였



고, 3월 회의에서는 1~3차 조은수 차수장이 김밥과 라면을 준비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만남의 날

-5차 108인회, 예천에서 단합대회

1월 20일과 21일, 경북 예천 생팀수련관으로 5차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5차 108인 가운데 7명이 참여하였다. 노인자 부원장이 예천과 깊은 인연이 있어 장소를 안내하였으며, 점심 공양도 후원하였다. 오랜만에 5차 108인이 한겨울 온돌방에 둘러앉아



서로 정을 나누며 단합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9차 108인회, 56년생 원송이따 주관 보궁삼사순례

2월 27일과 28일, 1박 2일 동안 보궁 삼사(정암사, 범홍사, 오대산 적멸보궁)와 낙산사를 참배하였으며, 25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먼저 영월 장릉의 단종 사당을 찾아 잔을 올리고 참배하였다. 이어 정암사에 도착하여 주지스님으로부터 “자비의 의미는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덜어주는 것”이라는 법문을 듣고 점심 공양을 하였다. 이후 범홍사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낙산사로 이동하였다. 낙산



하였다. 낙산

사 주지스님과 소임스님 여섯 분을 모시고 비금도에서 저녁 공양을 올린 뒤 설악산 템플스테이에서 숙박하였다. 28일에는 흥련암에서 새벽예불을 올린 후 월정사 정념회주스님께서 정성껏 마련해 주신 점심 공양을 하고 오대산 중대와 적멸보궁을 참배한 뒤 귀경하였다.

-11차 108인회, 신입 임원진 주재 회의

3월 13일 12시 개발원 마하실에 모여 신입 이현숙 차수장 주재로 11차 활동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에 앞서 매생이를 넣어 끓인 떡국으로 점심 공양을 하였다. 이어

진 회의에서는 11차 연회비 금액과 워크숍 프로그램 등 11차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족지원센터, 좋은 벗 활동과 4행시 한마당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은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모임 ‘좋은벗’ 활동은 올해도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로부터 2,03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월 8일부터 자조모임 ‘좋은벗’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역량강화·문화예술·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부부 템플스테이와 ‘4행시 짓기’ 등 여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

면 상담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로 ‘법향 가득 4행시 한마당’ 대회(5월 1일~31일)를 개최할 예정이며,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교정교화센터 불교반 수련회와 법회

1월 9일 겨울방학을 맞아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불교반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지원 9차 108인의 ‘그림으로 그리는 나의 미래’, 남동현 부원장의 ‘쉽고 재미있는 역사퀴즈’, 황외숙 4차 차수장의 ‘올동과 함께하는 동요

부르기’ 등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25일에는 김태훈 작가를 초청하



여 ‘대전 성심당의 역사와 성공 스토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월에는 서혜선 센터장 주관으로 교정교화센터 자원봉사자 회의를 개최하여 고봉중고등학교 봉사 프로그램과 참여 봉사자를 확정하고,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2월 22일 봉사활동에서는 이기향 고문의 ‘단청무늬와 놀아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단청 도안 색칠하기 활동을 하였다.

3월 22일 봉사활동에서는 서혜선 센터장이 ‘미래를 여는 마법, 생성형 AI 맛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AI 시대의 변화와 미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성된 타임캡슐은 보관하였다가 2026년 12월에 각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다문화행복가족센터, 정기법회와 새봄맞이 파티

3월 9일 다문화 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 정기법회가 열려 행복가족센터 회원과 봉사단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산하 한부모 자조모임 ‘좋은벗’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법회는 사기순 리더의 목탁에 맞추어 법요집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을 다 함께 낭독하였다.

점심 공양에 앞서 잠시 회의를 갖고,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으로 모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의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어 김미영, 윤지현 회원이 준비한 떡국으로 점심 공양을 하였으며, 전날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다문화 가정의 새봄을 맞이하는 의미로 케이크 커팅도 함께



하였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다문화봉사단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캐나다로 떠났던 10차 108인 김옥숙 회원이 한국에 돌아와 오랜만에 참석하여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에 오래 머물며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었다.

○ 명상리더십센터, 부처님의 상담법Ⅲ 개강

2월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화선 집중수련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영원한 이 자리, 실상에 머무는 화두 이뤘고’를 들며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졌다. 3월 9일 ‘부처님의 상담법 심화과정Ⅲ’가 개강하였다. 1강에는 15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월



16일에는 간화선 수행의 필요성과 실참, 3월 23일에는

취구심 없이 수행하는 방법, 3월 30일에는 무아와 윤회에 대해 공부하며 간화선 실참을 이어가고 있다. 본 강좌는 백경임 교수(동국대 명예교수, 전 한국불교상담학회 회장)가 지도하며, 간화선 실참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과 상담의 언어로 이해하고 수행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4월과 5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4월 25일에는 특별활동으로 쌍계사 참배와 백자 제다 체험이 예정되어 있다.

○ 불교여성연구소, ‘생각은 내가 만드는가’ 스터디

3월 20일 지혜실에서 불교여성연구소의 “지혜를 나누는 당신이 아름다워, 응원한데이!” 4차 프로그램이 열렸다. 4차 ‘응원한데이’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불교 스터디를 하고 2부에서는 삶과 수행 속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불교 스터디에서는 “생각은 내가 만드는가, 저절로 생기는가?”라는 주제로 ‘관념을 넘어 실재로’를 살펴봄과 자동적 사고와 명상(뇌과학), 유식불교의 마음



구조와 오변행심소(생각과 감정 조절)에 대해 공부하고 체크리스트 점검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2부 지혜 나누기 시간에는 박현주(12차)가 ‘공감과 의사소통’, 임부희(2차)가 ‘노래와 인생(발라드와 트로트)’, 노인자(5차)가 ‘다문화행복가족센터 이야기’를 주제로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 생명존중본부, 상담사 모임

1월 27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9명이 올해 첫 모임을 갖고, 8년 동안 자원봉사로 상담 활동을 지속해 온 상담사들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상담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위즈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위즈덤 합창단은 1월 8일 여성불자108인의 날 행사에서 축하 음성공양을 올렸다. 위즈덤 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합창단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불교여성개발원 2층 지혜실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합창단은 올해도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초보자도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은 사무국(02-722-2110) 또는 황경자 단장(010-6216-8647)에게 하면 된다.

○ 날란다독서모임, 매주 목요일 줌으로 북토크

날란다독서반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부처님의 당부』를 함께 읽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총 20회에 걸쳐 Zoom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의 인도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자유토론을 나누었다. 이 책은 Bhikkhu Bodhi의 『In the Buddha's Words』를 번역한 것으로, 니까야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10개의 주제로 정리한 책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독서를 마친 기쁨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었다. 약 700쪽에 이르는 분량을 끝까지 함께 읽어냈다는 데 모두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 읽을 책은 고미숙 저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북드라망)이며, 4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임을 시작할 예정이다.

○ 강미선(12차 108인), 김인숙(1차 108인), 안지영(11차 108인), 양경윤(5차 108인), 이영미(6차 108인), 하수경(1차 108인)

문화예술 분야 ‘여성불자 108인’ 6명은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불교여성개발원 3층 자비실에서 ‘명상과 예술, 하나의 호흡이 되다’를 주제로 2026 명상미술전 ‘K-Culture Mediart×Meditation Art’ 를 기획하고 작품을 전시하였다.



○ 김점란(6차 108인), 김영희(9차 108인), 김양희(6차 108인)

불교여성개발원 3층 자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명상미술전의 초청 프로그램으로, 3월 13일 “명상서클댄스”, 16일 “차 명상”, 23일 “만다라 명상”이 진행되었다.



○ 안기순(8차 108인)

2월 25일, 약사인 안기순 회원은 대한불교약사회 창립 회원으로서 올해 약사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법공양 도서 『불교의 체계적 이해』 80권과 『고익진 교수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80권을 불교여성개발원에 기증하였다.



○ 이은영·하수경(1차 108인)

이은영 회원은 2025년 12월에 수필집 『꿈이 길을 만든다』(부제: 작고 단단한 걸음들이 쌓아 올린 하루하루) 책을

출간하였다. 헌법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으로 살아온 작가가 삶의 진실과 본연의 나를 찾는 깊은 사색을 담아낸 책이다.

하수경 회원은 『꿈이 길을 만든다』 책의 삽화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 천양자(2차 108인) · 조은경(10차 108인)

2026년 3월 18일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3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안국선원 천양자 신도회장은 2011년 <불교 르네상스의 꿈 I 문화제> 부터 2017년 <불교르네상스의 꿈 II>까지 불교여성개발원 건립을 위해 6,3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은경 원장은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연꽃 10송이, 1,080만 원을 기부하였다.



○ 최혜경(2차 108인)

2025년 11월 25일 불광법회 불교기본교육에서 ‘불자의 신행(수행·기도 및 보살행)’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수익사업단장이기도 한 최 회원은 2026년 설 명절 바자에 떡국떡과 토종꿀 그리고 블루베리 등을 바자 품목으로 준비해 불교광장건립 기금에 일익을 담당했다.



○ 형난옥(6차 108인)

나눔출판사 형난옥 대표는 2026년 1월 김용래 저 『유머플리zip』과 2월 박해진 저 『시로 짓다, 조선』을 출판하였다. 『유머플리zip』은 30년 방송 유머 PD가 선별한 415개의 유머와 10가지 비법을 담은 실전 안내서이며, 『시로 짓다, 조선』은 훈민정음·시문학·불교를 하나의 사유 체계로 엮은 조선 전기 문화사의 역작이다.



2011-2025 모연금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16-25 바자 수익금		이숙자	7080000	우순기	2190000	김경자	1240000	서성숙	1080000	효성큰스님	1080000
	150029260	남인도순례	7000000	대한불교꽃꽃이	2160000	1-3차 108인	1220000	성의순	1080000	조원진	1072000
노숙령	124141000	실크로드순례	7000000	독고진	2160000	주옥녀	1220000	손경수	1080000	이태희	1060000
정대련	113630000	김숙애	6480000	서혜정	2160000	무기명	1208000	손광열	1080000	사기순	1050000
윤용숙	105000000	이영주	6120000	손성호	2160000	권현옥	1200000	손수일	1080000	심명숙	1040000
재아름다운동행		김진	6000000	손승영	2160000	이은순	1200000	송은주	1080000	권삼미	1020000
	100000000	박경희	5400000	양정희	2160000	정순화	1200000	송주익	1080000	가섭스님	1000000
마음모아함께	83573000	안은덕	5400000	오연중	2160000	한우진	1200000	신영섭	1080000	각현스님	1000000
천안자	63000000	원옥스님	5400000	유옥준	2160000	강옥란	1180000	심미림	1080000	강형열	1000000
김인숙	54684250	노인자	5270000	윤혜선	2160000	이혜산	1180000	안 영	1080000	경륜스님	1000000
송재영	52080000	김순례	5240000	임수현	2160000	장윤실	1180000	안순희	1080000	고옥스님	1000000
정영수	50000000	강미중	5200000	전영숙	2160000	최경분	1180000	안애원	1080000	권호기	1000000
이기향	46620000	권대자	5200000	정은희	2160000	최계순	1180000	양선화	1080000	금미희	1000000
김익숙	46180000	임동희	5080000	조은경	2160000	모의회	1150000	어순아	1080000	김개천	1000000
문화제티켓	40105000	이은영	5010000	조재란	2160000	서남녀	1150000	오기남	1080000	김경숙	1000000
김선숙	37260000	강영자	5000000	조희금	2160000	김정희	1130000	오세람	1080000	김동건	1000000
남민민	27500000	구원자	5000000	홍원숙	2160000	이윤희	1130000	오윤우	1080000	김상애	1000000
성낙윤	25300000	김선희	5000000	황경자	2160000	이현주	1130000	우계희	1080000	김승주	1000000
이은자	24503680	봉은사	5000000	황은복	2160000	강정숙	1120000	윤덕심	1080000	김영옥	1000000
최혜경	22780000	사찰음식전입	5000000	양현정	2100000	장철재	1110000	윤성문	1080000	김정목	1000000
피상순	21000000	이진화	5000000	황규창	2100000	김승경	1100000	이광호	1080000	김현숙	1000000
리영자	20900000	임순덕	5000000	김옥숙	2086000	김연수	1100000	이동분	1080000	김현순	1000000
유필화	20000000	주)에이치씨조크리		김영숙	2080000	우성란	1100000	이미호	1080000	김현옥	1000000
정진희	18000000		5000000	김인수	2080000	유복열	1100000	이아영	1080000	김해령	1000000
승만경동문화	16204650	진광스님	5000000	박종균	2080000	이명희	1100000	이영근	1080000	김혜순	1000000
남동현	15350000	해충스님	5000000	황수경	2080000	임영선	1100000	이영호	1080000	김화영	1000000
108인회	15150000	박원숙	4930000	김형숙	2020000	김영순	1090000	이윤정	1080000	김희천	1000000
조은수	14160000	이란	4700000	송옥순	2010000	유은주	1090000	이주연	1080000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이명순	12860000	윤용숙	4000000	박진현	2000000	신한전입	1084607	이태영	1080000		1000000
영108인	12212182	허정희	3850000	불교르네상스	2000000	강민정	1080000	이해남	1080000	노정임	1000000
이정호	12200000	홍경희	3769000	불교여성다문화	2000000	강재순	1080000	이혜숙	1080000	동신스님	1000000
손연옥	12160000	김용숙	3740000	이강희	2000000	고덕형	1080000	이호옥	1080000	동인스님	1000000
22-25수익사업	12150775	윤정로	3740000	이범수	2000000	고은자	1080000	이효원	1080000	모화성리연구소	1000000
이영미	12060000	본각스님	3640000	이지희	2000000	곽순란	1080000	이희숙	1080000	박강자	1000000
정미령	11980000	조정숙사무국	3516000	일범스님	2000000	금동원	1080000	임정자	1080000	박남수	1000000
김형인	11100000	사)지혜로운	3400000	임향이	2000000	김경애	1080000	장선옥	1080000	박상희	1000000
이연숙	11080000	김영희	3240000	정경란	2000000	김덕남	1080000	장정자	1080000	봉은사진화	1000000
정경연	11080000	진정순	3240000	정창현	2000000	김도연	1080000	정동식	1080000	불교TV	1000000
김애주	11000000	성민신	3180000	한주영	2000000	김미연	1080000	정영자	1080000	선재스님	1000000
이영숙	11000000	조명숙	3160000	김침숙	1990000	김성호	1080000	정은경	1080000	성각스님	1000000
정덕스님	11000000	하수경	3160000	김순덕	1980000	김순애	1080000	정재선	1080000	성정희	1000000
황선화	11000000	김두지	3080000	계미향	1890000	김승목	1080000	정지원	1080000	송춘애	1000000
양경윤	10900000	임주연	3010000	인혜경	1880000	김여주	1080000	정혜정	1080000	안수희	1000000
민경란	10800000	강부자	3000000	조경희	1870000	김영란	1080000	조성희	1080000	웅산	1000000
원유자	10800000	박인춘	3000000	김지영	1860000	김영임	1080000	진복선	1080000	원창용	1000000
김만옥	10720000	부산지원	3000000	장영심	1800000	김옥희	1080000	최유정	1080000	유명숙	1000000
손미영	10452000	석진숙	3000000	정주현	1800000	김원숙	1080000	최정현	1080000	유미희	1000000
김경량	10000000	엄미라	3000000	류인숙	1700000	김향신	1080000	최희영	1080000	유순경	1000000
김성림	10000000	월드양전입	3000000	김성숙	1620000	김현지	1080000	하수자	1080000	윤경환	1000000
대한불교진흥원	10000000	박순	2700000	심미경	1620000	김혜리	1080000	하진희	1080000	윤성희	1000000
보문회	10000000	형난옥	2620000	신명	1580000	노경훈	1080000	한말선	1080000	이경은	1000000
보우법사	10000000	남혜정	2480000	이연수	1580000	노혜명	1080000	한채화	1080000	이미령	1000000
우리논선우	10000000	권수형	2440000	손재현	1500000	류지영	1080000	할양자	1080000	이상호	1000000
이불회	10000000	김순자	2430000	이영희	1500000	박기분	1080000	허영숙	1080000	이선화	1000000
이현정	10000000	김순철	2430000	이용희	1500000	박문숙	1080000	형양자	1080000	이수복	1000000
전국버구니회	10000000	권은랑	2280000	손미원	1480000	박정희	1080000	홍광표	1080000	이애란	1000000
전재성	10000000	이순이	2260000	이명숙	1480000	박희상	1080000	황남채	1080000	이영민	1000000
정인자	10000000	안기순	2205000	노희순	1300000	백경임	1080000	황순연	1080000	이용자	1000000
황익숙	9000000	강문순	2200000	이경자	1300000	백미현	1080000	황영옥	1080000	이운	1000000
이주현	8080000	이병두	2200000	김태현	1280000	변영석	1080000	황진연	1080000	이은자	1000000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름	기부금액
이주현7차	100000	박상필	500000	유정상	300000	김병호	100000	최명희	100000	김승	10000
이혜영	100000	박소진	500000	이유미	300000	김성례	100000	최순진	100000	김신천	10000
일진스님	100000	박헌자	500000	이종연	300000	김성민	100000	최영민	100000	김은재	10000
임현숙	100000	배영자	500000	이혜숙	300000	김숙미	100000	최정현	100000	김혜경	10000
장경옥	100000	백정원	500000	이홍경	300000	김연금	100000	최창욱	100000	문선주	10000
장경희	100000	성명순	500000	정아연	300000	김용재	100000	최철환	100000	박옥희	10000
정철선	100000	수경스님	500000	정해일	300000	김인자	100000	최창수	100000	박정임	10000
주)코모도호텔	100000	양재화	500000	주)올리브나무	300000	김정길	100000	한선희	100000	송천옥	10000
주)프로토마	100000	이문숙	500000	채상희	300000	김철현	100000	한영실	100000	신현희	10000
중앙신도회	100000	이문희	500000	천정자	300000	김희동	100000	황보선	100000	양경자	10000
지은스님	100000	이영이	500000	하현정	300000	담교스님	100000	황선아	100000	양시황	10000
최옥희	100000	이윤숙	500000	홍소진	300000	박경미	100000	양정열	90000	양정자	10000
최은정	100000	이주옥	500000	황옥자	300000	박경자	100000	구윤임	60000	윤계경	10000
최해숙	100000	이지원	500000	황지선	300000	박기석	100000	김예슬	60000	윤남진	10000
현응스님	100000	임정애	500000	김국이	270000	박미란	100000	이정선	60000	이길순	10000
혜안스님	100000	전병숙	500000	김종숙	260000	박성열	100000	강대일	50000	이두주	10000
호국불교사	100000	조연홍	500000	최비안	260000	박은숙	100000	강순례	50000	이원태	10000
호국정법사	100000	진우기	500000	고병석	200000	박정애	100000	김용성	50000	이재담	10000
호국홍불사	100000	한미영	500000	권견화	200000	박종암	100000	김희영	50000	이재욱	10000
홍난숙	100000	함현경	500000	권순옥	200000	박헌선	100000	노명구	50000	정영라	10000
홍성숙	100000	해조음	500000	김경선	200000	백남열	100000	상윤모	50000	조명덕	10000
황경남	100000	홍정애	500000	김광민	200000	신은수	100000	석완영	50000	진성민	10000
황인보	100000	홍주희	500000	김보현	200000	안병인	100000	손미선	50000	최홍동	10000
윤정혜	95000	황수남	500000	김설향	200000	안준수	100000	신용애	50000	한경희	10000
강영자원	90000	강미자	47000	박인경	200000	양윤순	100000	손의분	50000	오지선	5000
이령자	90000	김남선	45000	보은사신도	200000	여문자	100000	윤지현	50000		
조항원	90000	양익숙	45000	성영란	200000	원지현	100000	이경미	50000	합계	2,298,771,836
정무스님	87000	하승희	45000	소갑석	200000	유병철	100000	이소정	50000		
신숙례	84000	김수환	42000	월운스님	200000	유신숙	100000	임병순	50000		
김평업	81000	니르바나	42000	윤영단	200000	윤혜경	100000	임현주	50000		
박영자	80000	조재업	42000	윤재희	200000	이경순	100000	자성인	50000		
윤지영	80000	최성윤	42000	이규상	200000	이덕영	100000	정상미	50000		
이명자	80000	권화순	40000	이승화	200000	이석호	100000	정은정	50000	천양자2차	30,000,000
장성은	80000	김옥경	40000	장예순	200000	이선옥	100000	정재연	50000	정대련6차	10,800,000
조연홍	80000	박금표	40000	장유빈	200000	이성학	100000	정현자	50000	조은경10차	10,800,000
홍순화	80000	윤소옥	40000	조미환	200000	이순재	100000	조귀자	50000	김여주10차	1,080,000
장승익	75000	이재순	40000	조한숙	200000	이영구	100000	차원준	50000	손수용	1,080,000
임지영	72000	이종숙	40000	조현경	200000	이영자	100000	최복희	50000	손수일	1,080,000
11차08인	70000	장위숙	40000	차창호	200000	이옥화	100000	해동스님	50000	손수준	1,080,000
김하은	70000	최은주	40000	한기능	200000	이유신	100000	홍점례	50000	손연옥12차	1,080,000
신수영	70000	성향경	39000	황윤선	200000	이지옥	100000	이철희	40000	이지윤12차	1,080,000
우승사	70000	박정희A	38000	박복순	180000	이정수	100000	강경숙	30000	이해남11차	1,080,000
강인영	66000	주)경주귀빈여행	38000	김환수	150000	이종을	100000	권숙란	30000	최연지12차	1,080,000
조성례	66000	그대항한길	37500	박경원	150000	이호길	100000	김시옥	30000	이정호2차	500,000
서경인	65000	김문자	36000	지경희	150000	임부희	100000	김정자	30000	김점란6차	300,000
이정자	64000	신용현	36000	김소옥	120000	임선희	100000	김현미	30000	보우법사10차	300,000
최윤옥	63000	양애자	36000	김연남	120000	임준순	100000	남춘혜	30000	한정화11차	200,000
권승오	60000	구자화	35000	박선영	120000	임현옥	100000	민성돈	30000	최봉영	190,000
양숙자	60000	김현임	35000	조은인	120000	임효정	100000	박경혜	30000	남동현6차CMS	90,000
임찬수	60000	여영미	33000	채은정	120000	장영숙	100000	박진서	30000	이기형1차CMS	60,000
홍광란	60000	주)몸웍스	33000	김재순	110000	전미옥	100000	안현주	30000	임지영CMS	60,000
정우진	54000	강춘기	30000	강근자	100000	전채린	100000	정혜숙	30000	홍소진10차CMS	60,000
맹선영	51000	김미진	30000	강숙희	100000	정영모	100000	진화경비	25432	최비안	30,000
강영남	50000	니문영	30000	강옥형	100000	정승희	100000	김영미	20000	최윤옥7차CMS	30,000
고영숙	50000	노태균	30000	강호덕	100000	정영혜	100000	김윤숙	20000	강인영	20,000
구자용	50000	민명숙	30000	권봉숙	100000	정은	100000	인량진	20000		
권경숙	50000	민은자	30000	권오현	100000	정진우	100000	인병식	20000	합계	62,080,000
권선	50000	변미숙	30000	김경현	100000	정향숙	100000	인여성	20000		
김영주	50000	변혁주	30000	김금옥	100000	조강자	100000	최영춘	20000		
김유실	50000	봉은사동작	30000	김대원화	100000	조유예	100000	강경숙	10000		
김재란	50000	석경동	30000	김동휘	100000	채경옥	100000	김동석	10000		
도일스님	50000	선일스님	30000	김명순	100000	채정희	100000	김복금	10000		
동블25기	50000	손일선	30000	김미경	100000	최경애	100000	김선기	10000		

2026 건립 모연금

이름	기부금액
합계	2,298,771,836
합계	62,080,000
2011-2025	2,298,771,836
2026	62,080,000
총 합	2,360,851,836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5.12.01~2026.02.28)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김승목(3차) 1,000,000	오세란(12차) 1,000,000	홍소진(10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김양식(1차) 1,000,000	오응옥(3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김순철 1,200,000	김영순(3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위영금(12차) 30,000
김여주 3,000,000	김옥희(5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유유희(12차) 30,000
남동현 3,000,000	김외숙(2차) 1,000,000	이경재(5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유화영(11차) 30,000
손재현 1,200,000	김용관(11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양현정 300,000	김용숙(7차) 1,000,000	이기항(1차) 1,000,000		윤효영(8차) 30,000
원유자 200,000	김윤옥(7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이미경(12차) 30,000
이영주 2,000,000	김은희(4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이승빈(12차) 30,000
이영희 1,200,000	김일명(7차) 1,000,000	이수이(3차) 1,000,000		이예숙(11차) 30,000
임수덕 3,000,000	김주현(8차) 1,000,000	이시구(11차) 1,000,000		이은경(11차) 30,000
전영숙 1,200,000	김지선(12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이중용(조명숙) 30,000
정대련 4,000,000	김지영(5차) 1,000,000	이영주(7차) 320,000		이진형(11차) 30,000
조은수 1,2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이혜숙(9차) 30,000
	김현진(7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임정애(6차) 30,000
	김형인(9차) 1,000,000	이은미(12차) 1,000,000		전영숙(8차) 3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남상민(1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정계순(12차) 30,000
	남혜경(11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정승아(12차) 30,000
구윤임 100,000	류인숙(5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정윤경(12차) 30,000
권숙교 1,200,000	리영자(1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정은경(12차) 30,000
김수향 100,000	문명하(5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정은희(6차) 30,000
김진 1,200,000	민혜성(12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정지원(7차) 30,000
박종덕 1,200,000	박강자(6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정혜정(9차) 30,000
서해선 300,000	박경자(5차) 1,000,000	이현주(10차) 1,000,000		조귀자(9차) 30,000
안기순 200,000	박근연(1차) 1,000,000	이혜원(11차) 1,000,000		조민기(11차) 30,000
이영순 300,000	박영혜(2차) 1,000,000	이화선(11차) 1,000,000		조정숙(6차) 30,000
이정호 1,200,000	박정애(8차) 1,000,000	임현숙(7차) 1,000,000		조현숙(10차) 30,000
이현숙 1,200,000	박종균(6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주찬옥(6차) 30,000
이화선 1,200,000	박찬재(9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채진영(11차) 30,000
정은희 1,200,000	백경임(1차) 1,000,000	정영수(4차) 1,000,000		최복란(8차) 30,000
정철재 1,200,000	백미현(10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최은희(9차_제주) 30,000
조재란 1,200,000	사기순(4차) 1,000,000	정미영(8차) 1,000,000		최희영(7차) 30,000
최혜경 300,000	서경애(12차) 1,000,000	정명학(8차) 1,000,000		한주영(10차) 30,000
최희영 400,000	서현숙(7차) 1,000,000	정인행(11차)-1차분		한채화(9차) 30,000
	서혜경(1차) 1,000,000			한혜원(7차) 10,000
	성민선(3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한화연(12차) 3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성수현(12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함양자(11차) 30,000
	성영란(10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황남채(1차) 30,000
강미중(5차) 1,000,000	손미영(7차) 1,000,000	조은수(2차) 1,000,000		황명자(6차) 30,000
강설미(7차) 1,000,000	손미원(9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황선화(5차) 30,000
강영실(12차) 1,000,000	손인희(9차) 1,000,000	조정형(8차) 1,000,000		황수남(9차) 30,000
고은자(10차) 1,000,000	송현주(4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황치석(10차) 30,000
구명숙(12차) 1,000,000	신용현(9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권지혜(7차) 1,000,000	안수연(11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김경량(10차) 1,000,000	안영(10차) 1,000,000	최봉영(12차) 1,000,000		
김귀순(7차) 1,000,000	안애원(7차) 1,000,000	최수영(11차) 1,000,000		
김미연(10차)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김미원(9차) 1,000,000	양애자(4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김복순(2차) 1,000,000	양정희(9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김선옥(6차) 1,000,000	양채희(7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김숙자(3차) 1,000,000	어순아(9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김순남(10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강명희(6차) 60,000	
			강순주(11차) 30,000	
			강옥란(7차) 30,000	
			강옥희(7차) 30,000	
			강희경(10차) 30,000	
			계미향(8차) 30,000	
			공은숙(12차) 30,000	
			구윤임(1차) 40,000	
			권애자(12차) 30,000	
			권영순(11차) 40,000	
			김득이(12차) 30,000	
			김복자(12차) 30,000	
			김서정(12차) 30,000	
			김수향(11차) 30,000	
			김순자(11차) 30,000	
			김양희(6차) 30,000	
			김영미(6차) 30,000	
			김옥주(7차) 30,000	
			김유경(12차) 30,000	
			김윤숙(11차) 30,000	
			김정기(12차) 30,000	
			김주원(12차) 30,000	
			김창옥(7차) 30,000	
			김혜경(12차) 30,000	
			김혜자(12차) 30,000	
			김효숙(12차) 30,000	
			남동현(6차) 30,000	
			남동화(3차) 30,000	
			노희순(3차) 15,000	
			문보경(6차) 30,000	
			박경현(11차) 30,000	
			박귀원(8차) 30,000	
			박정희(6차) 30,000	
			박혜옥(11차) 30,000	
			배순자(6차) 30,000	
			서은숙(6차) 30,000	
			손유림(11차) 30,000	
			손인애(9차) 20,000	
			송주희(9차) 30,000	
			송혜진(8차) 30,000	
			신재영(6차) 30,000	
			안인자(9차) 3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온라인)
				김경란(11차) 120,000
				김점란(6차) 100,000
				남숙희(12차) 120,000
				배정숙(12차) 120,000
				서예석(11차) 120,000
				윤영단(4차) 12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5.12.01~2026.02.28)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정진옥(12차)	50,000	장영선	10,000	불교여성광장건립(불교르네상스의 꿈 2)_ 약정 잔액	양정희	115,000	여송이	5,000
최혜정(12차)	120,000	장윤실	30,000		양현정(고봉중)	4,487,020	이형훈	300,000
한화연(12차)	30,000	정병모	30,000		원유자	100,000	임순덕	20,000
홍경희(2차)	30,000	정숙인	90,000	강소주(원유자 권선)	이령자(2차)	1,000,000	조재란	30,000
황은복(11차)	120,000	정주현	30,000	1,080,000	이영주	115,000	주)우진에프에이시스템	500,000
		정희자	10,000	구윤임(11차)	이윤희	50,000		
회원회비 (CMS)		조귀자	30,000	권수형(4차)	이희숙	115,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조여경	30,000	김연수	임무순	120,000		
강희출	15,000	조우상	30,000	김용숙(7차)	정대련	1,542,500	김여주	180,000
권은량	30,000	조정숙	60,000	김인숙 고문	황수경	170,000	김옥경	165,000
김어석	40,000	진승연	30,000	김중숙	황순연	115,000	신현옥	165,000
김연희	30,000	진여스님	90,000	남동현	황외숙	19,650	안형선	165,000
김영희	30,000	차원준	30,000	박순(1차)	(주) 유니메요(회보)	1,000,000	어순아	255,000
김정희	30,000	최순진	30,000	배영숙(10차)	교정교회센터		이희숙	90,000
김학엽	15,000	하양자	30,000	변영숙(김여주자)	가족지원센터-교정교회		황경자	180,000
김현숙	30,000	한승우	10,000	손미영(7차)		300,000	황영진	30,000
나경윤	15,000	허영숙	30,000	손미영(9차)			황은복	165,000
노지숙	30,000	형난옥	30,000	신병옥(신제정미소)				
도인희	30,000	홍숙기(진여스님)	30,000					
민선정	30,000	홍점례	15,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강인자	20,000		
박말희	15,000	황유진	3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곽선민	5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박문숙	30,000			이시구	김현지	100,000		
박원재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CMS)		이기향(1차)	무량감로회	500,000	강민경	100,000
박지선	30,000			이영주(7차)	박원자	50,000	권해영	10,000
박홍우	30,000	강인영	20,000	이영희(8차)	서혜선	100,000	김미영	120,000
서혜정	30,000	이기향	90,000	이인자 고문	손연옥	20,000	김지현	60,000
선문스님	30,000	최비안	6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손은주	120,000	김혜미	60,000
송만순	60,000				이란	1,000,000	김희정	1,750,000
안미경	4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최윤옥(7차, 최혜경 권선)	이시구	40,000	박영숙	90,000
안석자	30,000				이은미	10,000	방효정	60,000
연명순	3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이정호	120,000	오혜진	30,000
왕민영	3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전영숙	20,000	유연서	30,000
원유자	30,000	김선옥(6차)	100,000		정대련	200,000	유영미	20,000
유명숙	30,000	남동현	270,000	형난옥(6차)	정진옥	100,000	윤정은	30,000
육종연	30,000	문운정	200,000	홍소진(10차)	한주영	10,000	이경미	30,000
윤용옥	15,000	손수영(조재란 권선)			홍경희	20,000	장혜연	60,000
이강희	15,000		1,08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홍소진	20,000	정혜자	30,000
이고은	30,000	손수일(정대련 권선)		(다문화봉사단 /우바이예찬 /	황은복	10,000	최다혜	30,000
이미선	90,000		1,080,000	재소자영치금/기타)	7순갑장팀	100,000	한경숙	60,000
이숙자	30,000	손수준(조은경 권선)					한정미	200,000
이승자	30,000		1,080,000	강영자	가족지원센터 회비 및 후원			
이영재	30,000	손승영(정대련 권선)		고은자			금강경 회향보시금	
이윤구	30,000		1,080,000	귀빈여행사(양애자)	고국진	30,000		
이윤희	30,000	조은경(10차)	10,800,000	김선옥	고부진	60,000	보우법사	30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이정호	500,000	김숙미	고은자	60,000	송은주	100,000
이재영	30,000	임지영	90,000	김외숙	고채은	150,000		
이정애	30,000	최봉영(12차)	190,000	김점란	김영미	30,000		
이정호	30,000	최윤옥(7차)	90,000	노숙령	노경자	4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홍소진(10차)	90,000	백미현				
이화선	30,000							
신은영(자유스님)	30,0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